

# 전남 곳곳 공공체육시설 조성해 지방소멸 막는다

### 여수·순천·담양·보성·진도·완도 등 113개 사업 381억 투입 장애·유아형 국민체육센터 건립...파크골프장 신규 11곳도

전남도가 올해 체육 기반시설 분야 113개 사업에 381억원을 투입해 공공체육시설을 확충·개보수해 최적의 체육시설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일반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뿐만 아니라 고령화와 지방소멸 등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남도는 전망하고 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기금 공모사업'에 참여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신규 3건(일반형 1·장애인형 2)이 선정됐다. 선정지역은 여수(일반), 담양·완도(장애인형)다. 올해 신규 3건과 계속사업 6건에 기

금 80억원을 투자한다.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헬스장 등 남녀노소 누구나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종합체육시설이다. 유형은 일반형, 장애인형, 시니어친화형, 유아친화형이 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도 11건이 선정돼 기금 26억원을 확보, 노후시설 개보수 분야 7건, 긴급안전 개보수 분야 2건, 장애인 편의시설 분야 2건을 추진한다.

근린생활형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건립 4건(순천·보성·해남·진도)에도 국비 15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생활권 중심 1km 반경 내 규모 1000㎡의

목적체육관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또 89건 사업에 도비 260억원을 투입해 지역 특색에 맞는 지방체육시설 27건, 노인건강체육시설 15건, 운동장체육시설 4건, 생활체육공원 2건, 레저스포츠 시설 1건, 동네체육시설 40건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지방체육시설은 종목별 체육시설을 확충하거나 기존 체육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고, 노인건강체육시설은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노인건강체육시설 중 고령층에게 인기가 많은 파크골프장은 올해 11개소를 신규 조성 예정이다.

강인중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은 "올해 추진사업에 대해 만전을 기하고 곧 다가오는 2025년 생활체육시설 중앙 공모 등에 적극 대처해, 모든 도민이 활기차고 안전하게 스포츠활동을 즐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K-푸드' 해외 상설판매장 개설 지원

### 도, 15일까지 접수...임차비·홍보비·인건비 등 최대 500만원

전남도가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상설판매장 신규 개설을 지원한다. 해외 상설판매장은 케이(K)-푸드 열풍을 토대로 안정적 수출 판매망 구축을 통해 전남 농수산식품을 세계로 확장하는 새로운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신규 개설할 해외 상설판매장은 총 10개소로, 오는 15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전남산 농수산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해외 대형유통매장 내 판매장 또는 단독매장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임차비, 시설비, 홍보비, 시식

비, 인건비 등을 포함해 총사업비의 70% 이내로 수출 실적에 따라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는다. 상설판매장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수출정보망(www.jexpo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미국을 포함한 9개국에 상설판매장 2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해외 상설판매장 수출 실적은 1026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남도는 기업의 해외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확대하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시·군, 자원봉사 활성화 힘 모은다

### 역량강화 워크숍...전국소년체전·장애학생체전 등 성공 다짐

전남도와 전남자원봉사센터가 지난 8일까지 이틀간 진도 솔비치에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2024년 도·시·군 자원봉사 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도, 시·군 자원봉사담당과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등 150여 명을 비롯해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 중앙자원봉사센터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조원태 행안부 서기관의 중앙부처 자원봉

사제도 개선 방향 안내, 중앙자원봉사센터장의 2024 자원봉사 센터링, 전남도의 자원봉사정책 소개, 시·군의 우수프로그램 발표,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성공 다짐 등 중앙정부와 전남도의 자원봉사사시책 간 유기적 교류 장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 연말부터 범국민적으로 추진하는 온기나눔 프로젝트의 범도민 확산을 위해 온기나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온기나눔 프로그램에선 워크숍에 참석한 자원봉사 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가정에서 필요한 약상자 키트 120여 개를 직접 제작, 진도군 6:25 잠전유공자회와 고엽제 전유회 진도군지회에 직접 전달했다.

허갑숙 전남도자원봉사센터장은 "시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관리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양한 전남형 온기나눔 프로그램을 발굴, 범도민 캠페인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개발공사 사옥 입주업체 8년 연속 임대료 동결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전남개발공사는 사옥내 입주한 20개 업체의 임대료를 8년 연속 동결하기로 했다.

공사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업체의 안정과 금

리 부담을 고려해 지난해와 같이 임대료를 동결했다.

공사의 8년 연속 임대료 동결 조치는 최근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 추진 기조를 반영해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금년 임대료 동결을 통해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전라남도의 유일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지속적으로 공사소유의 시설물 무료 사용과 다양한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도 어린이집 3곳, 친환경 목재로 실내환경 개선

### 산림청 공모서 순천 2·광양 1곳 선정...총 7천만원 지원

전남도가 산림청 주관 어린이 이용 시설 목造化 사업 공모에서 순천 2곳, 광양 1곳, 총 3개소가 선정돼 실내 벽면 등을 친환경 목재로 바꾸고 실내 환경을 개선한다.

어린이 이용 시설 목造化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심고 가꾸 수확한 목재로 어린이집 실내 환경 개선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특히 목재는 탄소저장고이자 인체에 유익한 친환경 소재로, 영유아기부터 만지고 느끼는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시작했다. 이번 공모에서 전국에서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차 서류검토와 2차 전문기타당성 평가를 통해 최종 20개소가 선정됐으며, 전남과 경남이 3개소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과 대전, 대구, 경북이 각 2개소, 인천과 울산, 강원, 전북은 각 1개소다.

전남에선 순천 소재 꼬마와가어린이집과 꿈의

땅어린이집, 광양 소재 파랑새어린이집이 선정됐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1억원(국비 5000만원·시군비 2000만원)으로 보육실과 실내 벽면, 복도를 국산 목재로 새롭게 조성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전남도는 영유아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소방 법령에 따른 방염 처리와 건축법령 및 영유아보육법상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다.

전남에는 지난해까지 총 3개소의 어린이집이 친환경 목재를 이용해 실내환경을 개선했으며, 영유아와 부모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목재로 실내 환경을 바꾸면 숲속에서 느낄 수 있는 피톤치드가 일정량 공기 중으로 방출돼 피부질환과 호흡기질환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마을기업 판로 확대·특화상품 개발 탄력

###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협약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와 전남마을기업협의회,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난 5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전남마을기업 판로확대와 지역특화 우수 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송의현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 유성진 전남마을기업협의회장, 강정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전남지역 마을기업 발전을 위한 업무연계 및 공동 프로그램 기획 ▲전남지역 마을기업 판로확

대(개척)를 위한 사업정보 공유, 인력풀 및 인프라 공동 활용 ▲전남지역 마을기업 지역 특화 우수 상품 발굴 노력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송의현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지역 마을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개척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전남 마을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역에서는 예비마을기업을 포함한 총 318개소의 마을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